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1차 심의

- 일시 : 2013.12.13(금)~2013.12.14(토)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세미나실
- 심의위원 : 문학 분야 책임심의위원 추천 22명(분야별)

○ 2차심의

- 일시 : 2013. 1. 15(수) 13:00~15:0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세미나실
- 심의위원 : 문학 분야 책임심의위원 및 추천위원 11명(분야별)

**<1차 심의>**

○ 시

417명이 집필한 3천여 편의 작품들을 평가하면서, 시를 시로 성립시키는 직관의 힘을 해당 작품이 지니고 있는가, 지속적인 창작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구축하고 있는가 여부를 관건으로 하여 심의에 임하였다. 상당수의 시편들이 서정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였으나, 뚜렷한 발견이 없거나 언어 갱신, 도약의 의지가 없어 아쉬운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한땀한땀 언어를 정성스럽게 매만지며 장인의 솜씨와 진정성을 갖춘 시인들의 시를 만날 수 있어 보람된 자리였다.

○ 시조

이번 심의에서 55명의 시조작품을 읽으며 시조의 현주소를 짚어볼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감각과 발상을 보여주는 작품이 늘었고, 시조 특유의 압축미나 균제미 속에서도 현실의 다양한 이면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흔적과 언어의 참신한 변용을 꾀한 측면이 돋보였다. 상투나 답습을 벗어난 감각적 묘사 속에 성찰이 잘 어우러진 작품이 늘어나서 흡족했다.

○ 소설

주어진 200여편의 소설작품을 읽는 것은 한국 소설가들의 다양한 경향과 외연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단편 작품들의 경우 실험성과 참신함은 다소 부족했으나, 삶에 대한 깊은 천착과 질문이 돋보이는 가운데, 새로운 문법의 가능성이 풍부한 작품들을 주로 선발했다. 장편의 경우 역사물과 청소년물이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영상화 시대에 걸맞게 시각적인 묘사가 탁월한 작품들이 인상적이었던 한편으로, 회고록이나 자서전 형식의 작품이 적지 않아 아쉬웠다. 기성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의인 만큼 작품들의 뚜렷한 주제의식과 구조적인 완결성은 만족스러웠던 반면, 소설의 미학적 본령에 집중한 작품은 다소 부족하여 아쉬웠다.

### ○ 동시

아이들의 삶을 참신하게 반영한 작품이 많지 않아 아쉬웠다. 시적 형성화의 측면에서나 작품의 완성도, 포에지 등에서 두드러지게 뛰어난 작품이 드물었다. 하지만 많은 작가들의 작품에서 동시에 대한 열정과 함께 어린이들과의 진지한 대화과정이 엿보였다. 그런 점에서 동시의 가장 우선가는 덕목은 아이들의 눈과 만날 수 있는 예술이라는 점을 상기할 수 있는 자리였다. 다음에는 보다 투철한 동시작가들의 장인정신을 기대한다.

### ○ 동화

지원작품의 경향이 역사물에 편재되어 다양한 소재의 작품이 부족했다.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동화의 경우 준비과정의 정성이 느껴졌다. 환타지 작품의 경우 짜임새가 좀 더 설득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였다. 설명문을 보는 듯한 작품이 더러 있었던 점, 현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작품에서 참신한 소재가 드물었던 점이 안타까웠다. 출판을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 작품이므로, 기존 출간된 작품들에 비해 차별화된 소재와 전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 ○ 희곡

전반적으로 작품들의 수준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희곡의 절제된 형식에 내용을 적절하게 압축시킨 작품들을 일차적으로 선정했다. 시나리오나 창극같은 느낌이 드는 작품들은 배제했다. 선정한 5개 작품은 기본적인 충실함과 안정적인 극적 구조를 갖춘 것이었다. 아쉽게 탈락된 작품들은 선정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곡적 결점들이 도드라져 탈락된 것이었으며, 연극성은 심도 깊게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 ○ 평론

전체적으로 단행본으로서의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단편적인 문제의식이 많았으나, 그 중에서도 현장평론의 예리한 문제의식을 지닌 두 편과, 근대 수필에 대한 글을 선정할 수 있었다. 이주노동자를 다룬 소설비평, 이상을 다룬 시 비평문은 발랄한 문제의식과 문체를 구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비평은 우리 문학의 근간이 되는 장르이며, 비평이 죽으면 창작이 활성화될 수 없다. 비평계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 수필

문장의 정확성, 내용의 참신성, 표현의 적확성과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총 60여편의 작품 중에서 8명을 합격으로 선정하였다. 상투적인 시선이나 진부한 서술 및 평이한 문체 등은 되도록 제외시키는 가운데, 구체적인 체험과 사고력이 있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 <2차 심의>

### ○ 시·시조

2차 심의대상 작품의 특징은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서정적인 경향의 작품이 많다는 점, 신청자의 연령대가 높다는 점 등이다. 특히 2014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공모사업에 지원한 시·시조 작품은 다양한 내용과 상상력이 펼쳐져 있고,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 중에서 우리 문학의 다양성, 새로운 상상력,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공모사업 지원 신청작에 나타나는 시 정신의 자유로움, 언어의 활달한 전개는 우리 시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주었다. 선정된 시인들은 물론 선정되지 못한 시인들에게도 격려를 보낸다.

### ○ 소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2차 심의를 하면서, 작품의 수월성을 가장 우선하여 심의하였으며, 비슷한 수준의 작품일 때에는 최근의 활동상황, 기 작품의 문학적 성과 등을 참조하여 선정하였다.

응모된 작품들은 현대 한국 사회 전반에 관한 성찰과 예리한 분석 등이 잘 형성화 되어 있었고, 새로운 문학적 시도나 방법론도 관찰되었다. 특히 역사적 소재를 문학화하려는 시도가 많았고, 추리, 판타지, 무협 등 장르소설적 요소들을 작품 속에 끌어들이며 문학적 성과를 이룬 작품에 기대를 걸게 했다. 우리 소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 ○ 아동문학(동시·동화)

동시는 전반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참신성과 시적 형성화,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성이 미흡했다. 너무 작위적이고 상투적인 작품이 많았다. 따스한 동심을 표현하거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점은 호감이 갔으나, 억지로 꾸미고 가식한 작품이 많아 아쉬웠다. 구체적인 아이들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살아 숨쉬는 생동감 있는 작품을 집필한 작가가 적었다.

동화 작품은 역사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역사물이 많았으며, 대체로 문장력에서 안정감을 주어 몰입도가 뛰어났다. 우리 작가들의 시야가 점차 넓어지고, 어린이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세계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한 점은 흡족했다. 다만 기왕의 작품과 그다지 변별력이 없는 작품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도전적인 시도가 이루어졌으면 싶다.

수상작들이 어린이 문학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리라 기대한다.

### ○ 수필·평론·희곡

수필은 지원 신청작은 많았으나 생활 주변의 일상사를 다룬 소박한 내용이 주를 이루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하지만 문장의 완성도를 바탕으로 당선작을 골랐고, 발간 이후의 독자 호응도를 예상하여 '르포' 형식의 수필 또한 선정했다. 평론은 모두 진지하고 분석적인 태도로 집필 계획과 작품 구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작품을 충실히 읽고 설득력 있게 비평을 하려는 태도가 돋보

였다. 희곡은 극적인 기법이 새롭고, 실험의식을 바탕으로 자기 소재를 새롭게 해석해 낼 수 있는 가능성 가진 작품 세 편을 선정하였다.

전반적으로 새로움에 대한 탐구가 아쉬웠다. 작가와 세계 간의 교감이, 빼어난 작품과 문장으로 탄생하는 과정은 언제나 경이롭다. 그런 경이로움을 만나고 싶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심의위원 일동

## 다원예술분야

- 일시 : 2013. 12. 20(금) 10:00~19:00, 2014. 01. 14(화) 10:30~19:3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회의실, 세미나실
- 심의위원 : 박인석, 조성주, 장재호, 이영준, 최재천

###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다원예술분과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원예술창작지원', '융복합예술창작지원' 등 총 2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2개 사업의 총 지원신청건수는 335건이었으며 지원신청 총액은 13,011백만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다원예술분야는 많은 신청건수와 다양한 프로젝트의 실험성 등을 감안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일부 PT포함) 및 심층심의로 이루어졌다. 심의회의에서는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 2. 사업유형별 심의평

#### <다원예술창작지원>

다원예술창작지원 사업은 '14년도 공모에서 전년대비 100여건 이상이 증가된 292건이 신청되었고 그중 36건이(12%)선정 결정되었다.

신청단체 및 개인의 면면을 보면 전년에 이어 '14년도 사업에서도 신청건수에 비해 대부분의 신청 사업들이 다원적인 특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일부 있었다.

올해 특히 주목한 것은 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의 차별적 관점과 가치, 실현가능성, 작가의 지속적 창작 경향 등에 주목하여 심의를 하였으며, 장르간 단순 물리적 결합사업은 되도록 배제하였고, 다양한 개념들이 서로 융해되어 화학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다년간 지원을 받아온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 및 예술가에게 좀 더 배려하였다.

### <융복합예술창작지원>

융복합예술창작지원 사업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43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2건을 선정 결정하였다.

선정된 2개의 사업은 각기 지역의 자연 및 문화(예술)자원과 미디어, 적정기술, 생태 등의 동시대적 담론들을 포괄 할 수 있는 철학과 작업방식, 실현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를 함께 드러내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선정된 사업의 단체는 예술위원회가 협력파트너로써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1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 올해는 비예술분야에서도 신청이 들어왔지만 대부분 원론적인 접근에 머물러있어서 많이 아쉬웠으며, 일부 신청 사업들은 새로운 융합 모델을 발굴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공연과 포럼, 또는 전시와 포럼의 형식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지원 사업을 장기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올해 다원예술창작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사업 중 일부는 융복합예술창작지원 사업으로 전환 확장 가능한 사업을 중간선별 6~12개월간 시범운영평가하여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천, 향후 타 분야 협력기관과의 매개 및 협력형 융복합사업으로 추가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융복합예술창작의 플랫폼 기반조성 및 새로운 융합 모델 제시와 역할을 기대해 본다.

다원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